

국 외 소 식



베이징, 애완견 양육도 '가정 1마리'로 제한

인구 억제를 위해 '한 가정 한 자녀' 정책을 채택하고 있는 중국의 수도 베이징(北京)에서 애완견 양육도 '한 가정 한 마리'로 제한하는 정책이 시행되기 시작했다고 신화통신이 7월 3일 보도했다. 베이징시는 이달부터 관련 규정을 어긴 애완견 양육 가정에 대해 최고 5000위안(약 59만2000원)의 벌금을 물리기로 했다. 이 규정에 따르면 허가없이 개를 키우거나 매년 1차례의 애완견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경우, 금지된 시간과 장소에 애완견을 데려 갔다 적발된 경우에는 벌금이 부과된다. 또 도심지에서 큰 개를 키우거나 한 가정에서 2마리 이상을 키우는 경우도 벌금부과대상에 해당한다고 시 공안국은 밝혔다.

베이징 시민들 사이에서는 고가의 애완견 사육이 재력 과시 수단으로 자리잡아 공동주택에서 2~3마리를 사육하는 가정이 크게 늘어나고 있으며 당국은 광견병 등 개가 옮기는 치명적인 질병이 늘어남에 따라 이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되었다고 신화통신은 전했다.

문화일보 / 2006년 7월 4일

애완견 납치 영국서 성행

영국에서 사람 납치가 아닌 개 납치가 성행하고 있다고 일간지 인디펜던트가 7월 5일 보도했다. 납의 애완동물을 몰래 끌어난 뒤 주인이 '찾아주면 후사한다'는 전단을 동네에 붙이면 제각 연락해 사례금을 타내는 수법이다.

지난달 자신의 정원에서 퍼그 종 애완견 한 마리를 잃어버린 빅토리아 크로스리(59)는 동네를 샅샅이 뒤져도 개를 찾을 수 없자 결국 현상금 1000파운드(약 174만원)를 걸고 전단을 뿌렸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한 남자가 "말 시장에서 개 한 마리를 샀는데 아무래도 당신의 개 같다"며 전화를 걸어왔다. 크로스리는 "너무 기뻐서 돈을 건네고 개를 찾아오긴 했지만 이 남자는 분명 개 도둑과 한패로 보였다"고 말했다.

영국에서는 하루 평균 520마리의 개, 고양이가 실종된다. 신문은 이 중 최소한 수십 마리는 납치당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동물보호단체인 '도그 로스트'도 자체 조사 중인 1300여 건의 애완동물 실종사건 가운데 80%가 이러한 납치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사이먼 위스폴드 실종동물사무소장은 "애완동물 도둑질이 쉽게 돈 버는 방법으로 여겨지고 있다"며 "연간 수백 건이던 것이 이젠 매주 수백 건에 달할 정도"라고 말했다.

중앙일보 / 2006년 7월 7일

美애완견 주인 위급상황에 911 전화

비글종(種) 애완견이 당뇨병으로 쓰러진 주인을 위해 휴대전화로 구조를 요청, 주인의 목숨을 구한 것으로 밝혀져 화제가 되고 있다.

6월 21일 워싱턴포스트 등 언론 보도에 따르면 화제의 주인공은 플로리다주에 사는 전직 여객기 승무원 케빈 위버가 2년 전부터 기르기 시작한 ‘벨’이라는 이름의 애완견.

위버는 ‘벨’에게 후각을 이용해 자신의 혈당 수치가 너무 높거나 낮을 때 단축번호를 이용해 응급구조를 요청하는 ‘911’ 번호로 전화를 거는 훈련을 시켰는데 지난 2월초 자신이 부엌에서 쓰러지자 훈련받은 대로 단축번호를 눌렀다고 밝혔다.

주인을 구한 ‘벨’은 동물로는 처음으로 인명 구조를 위해 휴대전화를 이용한 이들에게 주어지는 ‘VITA 무선전화 사마리아인상’의 수상자로 선정됐다.

연합뉴스 / 2006년 6월 22일

진화론에 도움 준 세계 최장수 동물 176세 ‘다윈 거북이’ 숨져

진화론의 창시자 찰스 다윈(1809~1882)이 길렀던 것으로 알려진 거북이가 6월 23일 호주의 한 동물원에서 176세로 숨졌다. ‘해리엇’이라는 애칭의 이 거북이는 세계 최장수 동물로 기네스북에 올라 있었다. 호주 언론들은 6월 24일 ‘다윈이 진화론을 정립하는 데 도움을 준 거북이 해리엇이 심장마비로 숨졌다’고 보도했다. 외신에 따르면 해리엇은 다윈이 1835년 에콰도르 서부 연안의 갈라파고스 제도를 탐사하고 돌아올 때 데려온 거북이 세 마리 중 마지막 생존 동물이었다.

당시 다윈은 영국 군함 비글호를 타고 남태평양 생태계 조사에 나섰다. 이때 5세짜리로 추정되는 거북이를 잡았으며, 이를 관찰해 외딴 섬의 동물일수록 진화가 더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거북이를 데리고 런던으로 돌아온 뒤 ‘종(種)의 기원’을 집필했다.

그로부터 몇 년 뒤 다윈은 탐험대의 함장을 맡았던 해군장교에게 거북이를 선물했고, 이 장교는 1843년 호주로 부임하면서 해리엇을 데려갔다.

해리엇은 그동안 유명세를 톡톡히 누리면서 살아 왔다. 100여 년간 수컷으로 잘못 알려져 ‘해리’로 불리다 유전자(DNA) 조사를 통해 암컷으로 밝혀져 해리엇으로 개명됐다. 지난해에는 175세 생일파티를 성대하게 치러 세계적으로 주목받기도 했다.

다윈이 해리엇을 실제로 연구대상으로 삼았는지에 대한 증거는 명확치 않다. 일부 과학자는 “DNA 검사 결과 해리엇은 다윈이 방문하지 않았던 섬 태생”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해리엇을 돌봐 온 수의사 존 행거는 호주 A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다윈이 진화론을 쓰는 데 해리엇이 도움을 주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 2006년 6월 26일

中 동물보호 시위대, “고양이고기 팔지 마” 시위

중국 동물보호 시위대가 중국 남부 선전에서 고양이고기를 파는 레스토랑 앞에 모여 폐업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고 신화통신이 6월 18일 보도했다.

신화통신은 약 40명의 시위대가 ‘고양이와 개는 사람의 친구’라고 적힌 배너를 들고 팡지 캣 미트볼

레스토랑에 들어가 주인에게 점포 내에 있는 살아 있는 고양이들을 풀어줄 것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신화통신은 그러나 식당 주인이 이미 고양이들을 모두 내보내 건물 안에는 고양이가 한 마리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일부 시위대는 냉장고에서 껍질이 벗겨진 고양이를 발견하고 울음을 터뜨렸다.

2005 미스 선전 또한 이번 시위에 참가, 주민들에게 고양이와 개를 먹지 말 것을 요구했다.

식당 주인은 광둥지역에서 고양이를 먹는 것은 전통이라고 항변하면서도 업무를 계속할 수 없다며 더이상 고양이고기를 팔지 않겠다고 말했다.

시위 주도자는 이 레스토랑이 거리에서 고양이를 도살해 시위를 벌이게 됐다며 이는 인근 학교 학생들에게 매우 안좋은 영향을 준다고 지적했다.

한편 중국인들, 특히 남부지역 사람들은 고양이와 개를 먹는 것이 몸에 좋다고 믿고 있지만 경제발전으로 중국에서 애완동물을 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이같은 행위는 일부에서는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뉴시스 / 2006년 6월 18일

국내 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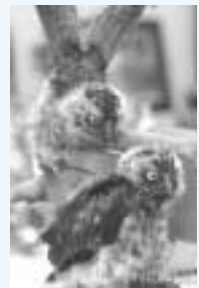


태풍 에위니아의 피해자, 솔부엉이 새끼들

천연기념물 제324-3호인 솔부엉이 새끼 3마리가 제주도 아라동 삼의양오름 인근 제주경찰학교 인근에서 경찰에 의해 발견된 후 7월 11일 제주시내 한라동물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이 새들은 이번 제3호 태풍 에위니아 내습 때 동지에서 떨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치료 후 제주시역 새 동호회인 '새가좋은사람들'에 의해 방사될 예정이다.

뉴시스 / 2006년 7월 11일



애완견 전용 상자없이 지하철 못탄다

철도공사가 수도권광역전철 구간에서 빈발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용객의 휴대물품 제한 및 이용객이 지켜야 할 에티켓 등을 집중 홍보하고 나섰다.

이 가운데는 애완견을 전용 운반상자를 이용하지 않고 데리고 탈 경우 제재가 가해지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한국철도공사 광역사업본부(본부장 신승호)는 수도권광역전철(지하철) 이용시민의 안전과 쾌적한 여행 환경 조성을 위해 이달부터 철도공안 및 공사 직원들로 구성된 특별활동조를 편성, 이용객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계도·단속·홍보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7월 13일 밝혔다.